

성매매·절도·수뢰...범죄 막는 경찰 맞아?

광주·전남 징계경관 5년 242명 여중생 자매 성추행 적발 파면도 전남 177명, 전국 4번째로 많아

전남의 한 경찰서 A경위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중생 자매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여성청소년계 소속이었던 A경위는 위 기청소년을 돌보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 1년여간 근무하면서 조순가정인 이들 자매를 상담하고, 휴대전화와 옷 등을 사주는 수법으로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

질렀다. 광주에서도 지난 2016년 동료 여경을 추행하고 폭행하거나, 가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경찰관 2명이 파면 조치되기도 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위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인원은 광주청 소속 65명, 전남청 소속 177명이다. 전남청 징계인원은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서울·경기·부산·경남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징계별 사유현황은 광주청이 규율위반 30명, 품위손상 18명, 금품수수 9명, 직무태만 8명이고 전남청은 규율위반 59명,

품위손상 55명, 금품수수 46명, 직무태만 17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856명, 2015년 793명, 2016년 778명, 2017년 723명, 2018년 8월 현재 277명 등 총 3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직은 651명, 해임 331명, 파면 236명, 강등 160명이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1231명, 감봉 818명이었다. 징계 사유별 현황은 무면허 음주운전, 직장내 성희롱, 개인정보 무단조회·사적조회 등 규율위반이 1504명으로 가장 많

았고 미성년자 강제추행·강간미수·성매매·절도·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이 1139명이었다. 또 사건 방지 및 목살·근무시간 중 음주 및 골프·현행범 임의석방 등 직무태만 590명, 항응·알선수뢰·사건해결 빙자갈취 등 금품수수 193명, 부당처리 1명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경찰관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뇌물수수, 도박 등 각종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출근길 겉옷 챙기세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 많음	7/18	보성	구름 많음	5/17
목포	구름 많음	11/18	순천	구름 많음	9/19
여수	구름 많음	11/18	영광	구름 많음	7/17
나주	구름 많음	5/18	진도	구름 많음	10/18
완도	구름 많음	10/18	전주	구름 많음	6/18
구례	구름 많음	4/18	군산	구름 많음	7/17
강진	구름 많음	7/19	남원	구름 많음	3/18
해남	구름 많음	7/18	축산도	구름 많음	13/17
장성	구름 많음	5/17			

◇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파고 (m)	풍향	파고 (m)	풍향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면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보통	지외선
좋음	미세먼지

◇ 주간 날씨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	☀	☀	☀	☀	☀	☀
8/17	7/20	8/21	10/20	14/19	10/21	9/21

폭언·폭행에 성희롱 광주·전남 교권침해 연간 200건 넘게 신고

광주·전남 교사들이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 폭언, 욕설 등 900건 이상 교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교권침해 사례도 33건이나 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제출받은 교권 침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2017년 광주는 581건, 전남은 363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광주·전남을 통틀어 944건으로 연간 236건꼴로 신고가 이뤄졌다. 광주에서는 폭언·욕설(373건), 수업 방해(101건)는 물론 폭행(9건), 성희롱(10건)까지 모두 569건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는 12건이었다. 전남에서는 폭언·욕설(216건), 수업방해(89건), 폭행(9건), 성희롱(5건) 등 339건이 학생에 의해 이뤄졌다. 24건은 학부모 교권 침해였다. 국회 교육위 박경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광주·전남에서는 105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여기에는 학생 생활지도에 양심을 품고 학교를 찾아온 할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혔다가 병원신세를 진 전남 초등학교 교사 사례도 포함됐다. /김형호 기자 khh@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학부모들로 구성된 광주여성회들이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지역 유치원 전수조사와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172개 사립유치원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

시교육청 30명 감사반 편성 129개 공립유치원 감사 병행

유치원 비리 파문에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감사 거부 유치원 공표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사립유치원 실태 전반을 살피기 위해 금명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마련된 정부 안은 오는 2020년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광주의 경우 2019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로 파악됐다. 장위국 광주시교육감은 18일 예정된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방침과 기간 등이 포함된 대책을 보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유관 부서 인원을 다수 지원받아 30명 안팎의 감사반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 업무를 제외한 분청 감사관실 인원 15명과 예산회계 업무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각 부서에서 지원받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유치원 담당 장학사들도 투입한다. 광주에는 현재 172개 사립유치원과 129개 (단설 11·병설 118) 공립유치원이 운영 중이다.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만 누리과정

지원(688억원), 학급운영비(30억원), 교원 인건비(105억원) 등 모두 835억여가량이 지원된다. 사립유치원 수준은 아니지만 공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서 추진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명간 감사에 착수해 영세한 유치원 몇 곳을 제외한 전체 유치원 감사를 내년 초까지 중단 없이 계속할 방침"이라며 "사립유치원 반발로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불성실한 감사 태도를 보인 유치원은 실명을 공표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여성회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현실을 방치한 교육당국 책임이 크다. 비리 유치원을 공개하고 유치원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경찰청 행락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전남지방경찰청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가을 시즌이면 행락지를 중심으로 버스 등 차량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을철 나들이 차량 증가에 따른 행락지 교통관리와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남지역 행락철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행락객이 증가하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보행자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평소보다 최대 30% 이상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전체 58.1%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관내 운수업체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행락철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과 함께 행락지 주변 위험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또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영하는 등 사고요인별 맞춤형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동식 단속 장비를 적극 활용해 과속 등 대형사고 유발 요인 행위에 대해서는 취약장소 위주로 집중 단속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기념재단 24일 '505보안부대 집담회' ...증언 청취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오는 24일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에서 '505보안부대 1차 집담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1980년 당시 505보안부대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증언'을 주제로 진행되는 1차 집담회는 노영기 조선대 교수의 '1980년 당시 505보안부대의 조직과 활동' 발표와 정문영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505보안부대에서 고초를 겪은 시민 3명의 증언이 이어진다. 이중 2명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건우 New Square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호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분양 임대 1899-8947

시흥 | (주)SB빌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흥 | 기보종합건설